

#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 시 유의점

## FAFSA 신청, 지난 1일부터 시작돼

대학에 원서를 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대학 공부에 소요되는 재정을 도움받기 (Financial Aid) 위해 재정 지원 신청서를 내는 일이다. 재정 보조 신청서를 내야 하는 마감일은 서류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학의 각 서류 제출 마감 시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보조를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자신들이 학자금 용자를 받기 위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료 연방 학자금 신청서(FAFSA)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미국교육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저소득층 가정의 5분의 1은 보조 신청서를 내기만 하면 연방 펠그랜트 (연간 약 6000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도 서류 조차 내지 않아 이 보조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특히 가계 수입이 6자리를 넘는 가정들의 경우 신청서를 아예 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가족의 숫자,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의 수, 가장 나이가 많은 학부모의 나이 등도 고려해 학자금 보조를 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설사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다 좋은 조건의 용자를 받을 수도 있다.

둘째, FAFSA를 작성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 세금 보고서 작성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올해 부터는 2년 전 세금 보고 서류도 인정돼 내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지난해 세금보고 서류 제출로 대신할 수 있다. 올해 FAFSA 신청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셋째, 지원하는 학교명에는 자신이 입학하고 싶은 학교만이 아닌 지원하는 모든 학교의 이름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계획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한번에 열 군데까지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하다.

넷째,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재혼을 한 경우 또는 부모가 이혼을 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집에서 오가며 생활하는 경우, 더 많은 재정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가계 소득이 더 낮은 부모님 쪽에서 더 오랜 기간을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섯째, FAFSA를 제출하면, 교육부 측에서 가족의 학자금 예상 지출 금액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을 정해 이것에 기반해 모든 보조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금액은 그 가정의 특수한 경제 상황 (최근에 일어난 휴직, 실직이나 일하는 시간의 감소, 가장의 사망)을 반영하지 않기에 그 가정이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잡힐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등록할 대학의 재정 보조 사무실에 이 사실을 알리고 가능한 많은 금액을 보조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 FAFSA 홈페이지 : [fafsa.ed.gov](http://fafsa.ed.gov)

# '목표 대학' 선택할 때 고려할 것들

## 학교 명성 집착 말고 학비 조달 방법 등 고려해야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먼저 목표 대학을 선택해야 한다. 목표 대학을 선택할 때는 먼저 자신의 GPA와 SAT, ACT 등 표준화 점수를 포함한 아카데믹 레코드를 비롯해, 전공, 학비 부담 가능성 여부, 특별활동 등 여러 요소들을 감안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의 명성이나 대학 순위보다는 자신이 전공하려는 학과가 지원하려는 대학에 개설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미래교육연구소(소장 이강렬, [www.tepi.kr](http://www.tepi.kr))가 목표 대학 선택에 꼭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 1. 학교 명성에 집착하지 마라.

말은 쉬운 데 실행하기 어렵다. 한국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아는 대학은 대부분 아이비리그 등 명문 사립대학 아니면 대형 주립대학들이다. 학생의 성적이 조금만 좋으면 아이비리그를 목표대학으로 정하고, 성적이 조금 낮으면 명문 대형 주립대학을 목표 학교로 선택한다.

미국에는 4년제 사립대학이 무려 2800여 개나 된다. 그런데 한국계 학생들이 선택하는 대학의 폭은 매우 좁다. 주립대학 가운데서도 몇 개 대학에 불과하다.

### 2. 대학 순위에 집착하지 마라

유에스뉴스가 해마다 내놓는 대학 순위는 대학 선택에 참고 사항일 뿐이다. 많은 대학들은 유에스뉴스에 랭킹이 올라가야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랭킹을 올리기 위해 자료를 허위로 내놓거나 조작을 일삼기도 한다.

좋은 대학은 내게 맞는 대학이다. 내가

좋아하는 전공을 4년 동안 잘 배우고 나와서 사회에서 높은 연봉에 보람 있는 일을 하면 된다. 연봉 랭킹은 대학 랭킹이 아니다. 요즘에는 대학 학부로 끝내지 않고 대학원 석박사까지 가는 학생들이 많다. 먼 앞을 내다보고 대학을 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 3. 학비를 고려하라

아무리 좋은 떡이라도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살 수 없으면 '그림의 떡'이다. 내가 좋은 성적을 갖고 명문 대학에 합격을 해도 학비를 조달할 수 없으면 소용이 없다. 미국 대학에 지원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는 '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가?'이다. 학비를 부담할 수 없으면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재정 보조/장학금을 받거나, 학비가 저렴한 대학에 가거나,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는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 4. 전공 랭킹에 얽매지 마라

기본적으로 학부에서 전공 랭킹은 의미가 별로 없다. 전공 랭킹은 대학원 석사 이상에서 해당된다. 다만 자신이 하고 싶은 전공이 지원하려는 대학에 있는가는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Computer science가 어느 단과대학에 소속돼 있는가는 중요하다. 어느 대학은 엔지니어링 칼리지, 즉 공과대학 안에 있기도 하고, 어느 대학은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에 있기도 하다. 공과대학 안에 있으면 경쟁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 미국 세무사 시험 준비반

## IRS Special Enrollment Exam

### 무료 강의

유튜브에서 "장홍범 교수"를 검색하시어 전과목 족집게 무료 강의를 경험해 보세요

30년 이상의 강의 경험, 한인 세무사들의 대부

현 미주공인 한인세무사협회 회장인 장홍범교수(CPA겸 EA)의 합격률 100%의 명강의



장홍범 교수 CPA, EA  
현, 미주 공인세무사 협회 회장  
C & C Group Inc. 공동 대표  
회계학 학사  
세법학 석사  
회계학 박사 과정

온라인 동영상  
재택 공부과정  
\$700

온라인 재택 공부과정을 금년 12월 이내에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 개강 예정인 오프라인 강의(\$1,400)에 무료 수강



"학력, 전공, 신분 상관없이"  
누구나 2달이면 합격  
100% 합격 보장



▲ 세무사 시험 안내서 ▲ LA 강의 모습

세무회계 사무실 개업에 필요한 실무연습  
[www.eatax.net](http://www.eatax.net) 온라인으로 실무연습 가능  
개인 세금보고서 시나리오 30개,  
법인 세금보고 시나리오 10개로 직접 세금보고 업무연습

수강 신청 및 시험 상담  
714-393-2238  
시험 정보 및 동영상 강의  
[www.eatax.net](http://www.eatax.net)  
[www.eatax.com](http://www.eatax.com)